

‘그녀들만의 리그’가 인기 있는 이유

‘스우파’ ‘골때녀’ 열정·동료애, 승부보다 감동

죽을힘을 다하는 열정·프로의식 서로를 챙기는 배려·존중에 박수 주변인에서 주인공이 된 여성들 시청자 반응도 각각 1위, 5위권

‘강인한 여성?’

오해다. 그저 입을 열정적으로 즐기며 연대의 손을 내밀어 즐거움을 찾아 나선 것뿐이다. 그래서 온전한 프로페셔널로 다가온다. 여기에 다양한 지표가 더해지면서 또 하나의 ‘서사’가 더욱 탄탄해진다. SBS 예능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시리즈와 엠넷 댄스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그리고 그 무대에 나서는 이들의 이야기이다. 여성 출연자 라인업이 적지 않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인방극장에서 든든한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다.

●시청자 반응 ‘최고’

지상파·케이블 등 29개 채널의 드라마·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능동적 반응과 콘텐츠 인식 및 관심을 나타내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보면 ‘골때녀’가 13일 시즌1을 마무리한 가운데 9월까지 ‘인터넷반응’과 ‘종합반응’에서 예능프로그램 5위권 안팎에 자리했다. 1위는 ‘스우파’로, 8월24일 첫 방송 이후 19일 현재까지 정상이다. 화제성 분석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10월 1주차(4~10일)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도 ‘스우파’이다. 출연자 화제성 톱10에도 무려 8명이 순위에 들었다. ‘골때녀’도 9월 말까지 10위권에서 순위를 유지했다. 모두 다수의 시청자가 TV만이 아니라 PC, 모바일 등으로도 방송프로그램을 보는 상황에 TV 시청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시청자 관심이



MN ‘스트릿 우먼 파이터’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위부터)은 여성 연예인으로만 출연진을 구성해 새로운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진심과 열정, 연대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제공 | 엠넷·SBS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심의 열정=프로페셔널

특히 출연진의 ‘진심’을 시청자들이 인정한 힘이다.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서 이용자들은 출연자들의 진심과 열정,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의식에 손을 들어준다. 여성 연예인들의 축구 대결인 ‘골때녀’는 출연자들의 “죽을 힘을 다하는 모습”과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이 감동을 준다는 의견이 많다.

이용자들은 “진심이 느껴지면 시청자는 외면하지 않는다”면서 FC구척장신팀의 골키퍼 아이린이나 월드컵라스팅의 사오리 등 특정 출연자를 거론하며 “몸을 날리는 열정” 속에서 “저런 동작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며 감탄하는 시각을 낸다. 한 현직 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동기부여와 수업자료에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여성댄서들이 격렬하면서도 화려한

댄스 배틀을 펼치는 ‘스우파’를 두고서도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알리고 성장 시킨 장르의 한계점을 돌파하고 멋진 무대를 만들어낸다”며 찬사를 보낸다. “성별이나 유명세 따위 구분 짓지 않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댄서들을 강조한 무대와 그걸 더 잘 표현해준 의상” 등 출연자의 열정적인 몸짓에 환호하고 있다.

●“연대의 투지로 반란을”

이러 출연자들의 동료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대에도 박수를 보낸다. ‘골때녀’ 속 “서로를 챙기는 배려와 팀워크가 어설픈 프로경기보다 감동이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또 “팀플레이 속에서 느껴지는 우정과 열정이 멋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를 통해 “승부와 승패를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했다”는 극찬까지 이르는데, 그 힘도 동료애와 팀워크로 표현되는 연대에서 나온다는 평가이다. 이런 시각은 ‘스우파’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용자들은 “스스로 원하는 걸 잘 알고 있고, 정확히 말할 줄 알며, 댄서들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다”면서 경쟁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연대의식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경쟁자의 무대를 “분석해주고 눈동자 위치까지 맞추는” 출연자들은 “(서로)믿고 가는 거지”라는 시각 위에서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기에 “남녀 구분 짓고 한계를 규정하는 걸스합합이란 말에 몸을 표를 던진다”는 댓글은 “남녀의 성적 경계에서 벗어나 무대 위에 나서는 프로페셔널에게 보내는 찬사로 받아들여진다. 최영균 대중문화 평론가는 19일 “자칭 여성(백)댄서라는, 이중의 주변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이들이 실력과 투지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주체로 활약하는 ‘반란’을 보는 쾌감을 안긴다”고 평가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 BTS 노래 ‘친구’ 삽입



방탄소년단

그들 방탄소년단과 마블의 슈퍼 히어로가 만난다. 19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11월 개봉하는 마블 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 영화 ‘이터널스’에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MAP OF THE SOUL: 7’에 담긴 ‘친구’가 삽입된다. 우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는 멤버 지민이 프로듀싱했다. 방탄소년단은 칼 퍼킨스, 스키터 데이비스, 핑크 플로이드 등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가수들과 함께 OST에 참여한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2월3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징글볼 투어’에도 참여한다. ‘이터널스’는 배우 마동석이 길가메시 역으로 출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마동석, 연인 예정화와 ‘이터널스’ 행사 참여



마동석

배우 마동석은 영화 ‘이터널스’의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열애 중인 방송인 예정화와 함께 참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한국시간) 마동석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이터널스’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영화에 대해 “첫 할리우드 영화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면서 극중 캐릭터인 길가메시에 대해 “강력하고 힘이 세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나선 또 다른 주연 안젤리나 졸리에게 예정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가 주연한 ‘이터널스’는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으로 11월3일 국내 개봉한다.

연기자 박하선,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



박하선

배우 박하선이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이 내림이 기도도 들어가 감염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그가 진행해온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은 19일 남편 류수영에 이어 20일 주시는 아나운서 서가 이어간다. 류수영은 이날 ‘박하선의 씨네타운’에서 “캔디(박하선)가 몸이 조금 아파 오늘 대신 찾아오게 됐다. 회복 중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박하선은 치료를 마치고 25일 복귀할 예정이다.

아이유, 신곡 ‘스트로베리 문’ 음원차트 정상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19일 내놓은 신곡 ‘스트로베리 문’(strawberry moon)이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곡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멜론 톱 100 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노래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팝 록 장르로,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하고, 노랫말을 직접 썼다.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2’에 출연한 신인배우 이종원이 아이유와 함께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노래는 대부분 오후 6시에 신곡을 발매하는 가요계 관행을 깨고 자정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내일 상암 MBC서 ‘서울드라마어워즈2021’

‘서울드라마어워즈 2021’ 시상식이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다. 19일 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는 “시상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비대면으로 열리며 MBC와 시상식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된다”고 밝혔다. 배우 박은빈과 그룹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진행자로 참석한다. 시상 부분은 국제경쟁, 국제초청, 한류드라마 등이며, 전 세계 41개국 238편 작품이 경합을 벌인다. 다양한 국내 인기 드라마 OST 곡들을 선보이는 ‘드라마 OST 콘서트’도 함께 마련된다.

앨범판매 6000만장 예고 ‘K팝의 힘’

(사상 최대)

BTS·스트레이키즈·NCT·블랙핑크 1000만장 돌파...88개국 수출도 음반수출액 약 2064억 120% 늘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비교적 큰 시장인 중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케이(K)팝 앨범 판매량이 2014년 이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며 호황을 맞고 있다.

19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음반 판매량은 약 4300만장으로, 이미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섰다. 매년 1월부터 400만까지를 토대로 한 연간 음반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수치는 2014년

738만장 이후 해마다 증가해왔다. 2015년 838만장, 2016년 1080만장, 2017년 1693만장, 2018년 2282만장, 2019년 2459만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4200만장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케이팝 4세대 선두주자인 스트레이키즈(JYP엔터테인먼트)까지 판매량 1000만장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가요계 ‘빅4’ 기획사인 하이브(방탄소년단·세븐틴), SM엔터테인먼트(엑소·백현·NCT 드림·NCT 127), 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가 모두 밀리언셀러를 배출하게 됐다. 특히 음반 판매량에 강세를 보이는 아이



올해 음반 판매량이 6000만장에 달할 전망이다 가운데 케이팝 스타들의 활약이 힘을 더하고 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도 8월 내놓은 정규 2집 ‘노이즈’(NOEASY)로 최근 ‘밀리언셀러’가 됐다. 뉴스5

돌 가수들이 대거 컴백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6000만장 판매고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원은 “올해 4분기 판매량을 추산하면 당초 예상한 연

간 판매량 5000만장 돌파가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4분기 앨범 판매량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총 음반 판매량은 6000만장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중국발 케이팝 팬덤 규제 조치도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케이팝 앨범의 인기는 뜨거웠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음반 수출액은 1억 7394만8000달러(약 2064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119.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했고, 중국·미국·인도네시아·대만·태국 순이었다. 또 2012년 23개국에서 올해는 88개국으로 수출국이 크게 늘어났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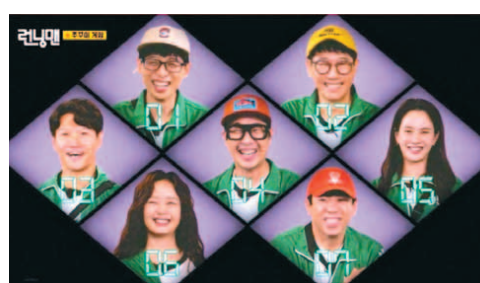
‘대탈출’ ‘런닝맨’...K예능도 팬덤이 관건

tvN ‘대탈출’, 중 해외예능 1위 SBS ‘런닝맨’ 동남아 팬덤 인기 OTT 발판 해외서 영역 확장 중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과 ‘마이 네임’ 등 드라마가 한류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각종 예능 콘텐츠도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판으로 해외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독특한 포맷과 출연진의 팀워크로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팬덤’을 쌓은 tvN ‘대탈출’, SBS ‘런닝맨’ 시리즈 등이 주목받고 있다.

11월12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플러스는 모두 7편의 한국 콘텐츠 중 하나로 ‘런닝맨’의 스폰오프를 선보인다. ‘런닝맨: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이다. 방송인 지석진·하하, 가수 김중국 등 ‘런닝맨’의 일부 고정 출연자들이 매주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디즈니플러스는 이들이 ‘런닝맨’으로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형성한 두터운 팬덤에 기대 가입자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티빙도 팬덤 형성에 유리한 예능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고 있다. 이병환 티빙 공동



SBS ‘런닝맨’의 김중국(둘째줄 맨 왼쪽) 등 일부 출연자가 관련 콘텐츠를 OTT에서 선보인다. 사진출처 | SBS 방송화면 갈무리

대표는 “대중이 가장 끌릴 수 있는 팬덤”을 핵심 전략의 하나로 들면서 올해 1월 내놓은 ‘여고추리반’ 시즌2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지윤·장도연, 가수 최예나 등이 가상의 여고등학교에서 거대한 음

모를 풀어가는 ‘여고추리반’은 ‘대탈출’ 시리즈를 만든 정종연 PD의 신작으로 국내 외에서 주목 받았다.

정 PD가 2018년부터 연출해 최근 시즌 4를 종영한 ‘대탈출’도 젊은 세대 중심의 팬덤을 구축해 한류 콘텐츠로 발돋움했다. 방송인 강호동, 가수 신동 등이 대규모 세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시즌 4는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의 ‘해외 호평 예능 순위’에서 9월 한 달간 1위를 차지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박경진 중국 베이징 통신원은 “고정 출연자뿐 아니라 정종연 PD까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충성도 높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